

병원(획득성)감염은 병원 혹은 요양기관의 치료 중에 발생한 2차 감염으로, 통상 환자가 입원 후 48시간이 지난 때 부터 퇴원 후 30일 이내에 감염(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를 지칭한다. 이 경우 감염원은 환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미생물인 경우도 있고, 병원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인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 입원환자의 5~10% 정도에서 병원감염이 나타나고, 주로 노로바이러스, 수술부위감염, 기관지 혹은 폐 감염, 혈액관련 감염 등이다.

병원감염은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부터 있었다. 1840년대에 켈멜바이스(Sammelweis)는 의사가 산과환자를 보 고 손을 잘 씻지 않은 경우 그 이후의 산과 환자의 신생아에 신생아열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불교경전에도 식사 전에 콩비누(조두, 漚豆) 또는 우시(作屎, 당시 비누의 일종)로 손을 깨끗이 씻게 하고, 양치(楊枝로 이를 닦는 양치질)를 하도록 하였다.

1860년대에 파스퇴르가 병은 미생물이 일으킨다는 질병세균설을 주장하고, 외과의사인 리스터는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소독제인 석탄산으로 손을 씻고 수술기구를 소독함으로써, 수술



**불자 세상보기**

**배 광 식**  
서울대 치과대학 교수

**병원감염 예방대책 없나?**

후 감염률과 사망률을 대폭 줄였다. 또한 미생물 감염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살바르산이나 설파제 등의 화학요법제를 거쳐, 1928년 플레밍(Fleming)이 곰팡이에서 추출한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등장하고, 그 이후 많은 항생제가 등장하였다.

우리들은 수많은 미생물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들 미생물은 유익한 경우도 있고, 해로운 경우도 있다. 인체는 선천적으로 병원균에 대항하는 많은 장치를 가지고 있다. 피부와 점막은 외부의 미생물이 인체 내부환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

지하는 우주복 같은 역할을 한다. 또 백혈구 등은 염증에 관여해 일단 우주복을 뚫고 들어온 균에 대한 신속 저항군 역할을 하고, 면역체계에 의해서 장기적인 대처를 한다.

세균으로 인한 질병을 앓게 되려면, 세균의 착상, 증식, 독성이 있어야 하고, 인체의 저항성이 나 면역체계를 이겨야 한다. 건강인은 감염이 잘 안 일어나고 감염이 되어도 이를 쉽게 극복한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 그 중 특히 노약자나 유아, 면역억제제 복용자 등은 저항력이 약해 쉽게 감염되고,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주사,

카테터, 수술 등은 인체의 우주복을 손상시키는 속삭으로 감염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타인 또는 동물의 장기가식도 감염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병원은 각종 질병 즉 병원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미생물들은 변이과정을 끊임없이 거친다. 그래서 다양한 미생물을 강력히 억제하는 광범위 항생제를 계속 개발해도, 그를 극복하는 내성 미생물이 또 등장하고, 특히 항생제 남용시 소위 말하는 슈퍼박테리아가 잘 생긴다. 현재 메티실린저항균(MRSA), 반코마이신저항균(VRE) 등의 슈퍼박테리아가 있다.

병원감염은 이들 중 1/3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우선 국가에서 감염관리에 관한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고, 감염관리 비용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각 병원의 중환자실이나 병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원들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병원환경의 청결, 각종 기구의 철저한 소독과 관리법 등을 숙지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더욱 노력해야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항생제 과다사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국민, 의료진, 국가 모두 슈퍼박테리아의 출현가능성을 높이는 항생제 오남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일이다.

**불자의 눈**

안국동 '나눔의 가게' 1호점은 언제나 붐빈다. 좁은 매장에 가득 찬 손님들을 좋은 물건 값싸게 사려는 사람들과 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나눔 운동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말리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수시로 물건을 기증하는 사람도 있다. 나눔이 우리 사회의 생활 코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한 예다.

참여불교재가연대가 2월 8일 공식 선포한 '해피타임 캠페인' 및 NGO 혁신모델 비전'은 불자라면 누구나 동참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소득의 3% 회향, 시간의 3% 회향, 명상의 3% 회향, 3인에게 권유를 골자로 하는 해피타임 캠페인은 모범적인 불자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수입의 25%를 남을 위해 써야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수입의 3%를 남을 위해 쓴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려는 의지와 생활화의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해피타임 캠페인이 권장하는 수의 3% 회향 운동의 성공여부는 불자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3% 나눔 '해피타임' 캠페인  
정도 건설 위한 불자의 발원**

시간과 명상의 3%를 회향하자는 제안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조차도 '내 시간은 없다'고 외치며 사는 현대인에게 시간의 3%를 나누자는 것은 엉뚱한 호소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나 자신의 여유를 남과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넉넉한 공덕이 되었는가를.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진 회장은 취임식에서 "이 캠페인은 사회지도층이 먼저 앞장서 자기 시간과 소득의 3%를 이웃과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하루 3%의 시간을 자기 성찰과 이웃을 위한 명상의 시간으로 쓰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3%의 힘은 얼마나 될 것인가? 자신과 이웃을 위한 3%의 나눔은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자신과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재가연대의 이 캠페인을 단순한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크게 얘기하면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정도건설의 발원일 것이다. 범위를 축소해 이야기 한다면, 자신의 생활 습관을 철저히 '나눔'에 집중함으로써 남보다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기르자는 발원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캠페인은 가장 불자다운 삶, 가장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자는 염원이 담긴 실천운동인 것이다.

이처럼 숭고한 염원을 자신만이 간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캠페인은 마지막마로 권장하고 있다. "3인에게 권유하자"고. 내 주변의 세 사람에게 이 캠페인을 전달하고 그들이 또 다른 세 명에게 확산한다면 머지않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토가 될 것이다. 해피타임 캠페인, 우리 함께 불국정토의 주인공이 되자는 외침이 온 누리에 메아리칠 기원한다.

**이렇게 들었다**

포용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형제·부부·가족, 안팎의 친척 사이에 서로 공격하고 사형하여 미워하지 않으며, 내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말과 언어에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량수경>

이탈리아 북부 만토바 인근의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남녀 유골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5000 전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골들이 화제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자세 때문. '발다로의 연인'이라고 불리는 유골은 서로 마주 보고 꼭 껴안은 자세로 발굴됐다.

이 독특한 포용 자세에 대해 남성이 사랑하자 영혼의 동반자 역할을 위해 여성을 희생시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뛰어넘는 불멸의 사랑에 무게중심을 두려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프리허그(free-hug) 운동이 상륙했다. 헨터씨가 어머니 죽음을 계기로 어머니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소망의 정신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했다는 이 운동은, 말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포용하는 것이다.

포용문화가 익숙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딘가 생뚱맞아 보여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한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고. 나는 자문해본다. "나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포용을 나눈 적 있는가".

제 몸보다는 남의 몸 사랑하고 제 목숨으로 남의 목숨에 건주는 그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출요경 염품>  
■ 남동우(취재부 기자)

**새해 이것만은...**

**군포교 활성화, 군법사가 '주체' 다**



셋째, 군포교에 대한 공통된 마인드를 군승들끼리 자주 공유하는 일

군중교구의 출범으로 군포교에 대한 관심과 군포교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군포교 발전을 위한 만인동참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가고 있고 군포교의 성과물들을 담아내는 월간 <군포교>지도 창간되었다.

또한 교구장 스님의 지체적 군포교역량이 점점 강화되어 가고, 조직과 제도를 통해 군중교구가 활성화 되어 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와 더불어 보다 더 발전적인 군포교를 위해서는 점검해야 할 일들이 많다.

첫째, 내부적인 포교역량 강화를 위해 주체인 군승의 자기 발전을 위한 수행이

**자기발전 위한 노력·포교성과 공유 등 정착돼야**

점검되어야 하겠다. 일반 기업에서도 기업 발전을 위해 사원들에게 끊임없이 변화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위해서 기업은 사원들에게 동기부여와 함께 물적 투자를 아낌없이 제공해주고 사원들은 끊임없이 자기충전을 함으로써 회사에 기여 한다. 종교인이라고 다를 바 없다.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며 포교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총명한 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수행에서 나온다. 수행을 위한 동기부여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 수행이 다분히 개인적이기는 하나 공동의 힘에서 나오는 힘도 무시할 수 없다.

둘째, 외부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 방법과 내용에 대한 성과와 분석 등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30여명이 움직이는 조직에 포교성과를 확인할 방법이 수백 인원이외에 없다는 사실은 조직의 힘과 역량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조직적이고 발전적인 포교를 위해서는 포교의 방법과 내용

에 대한 철저한 내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포교는 주로 어떻게 하며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포교 지침이 만들어지고 포교성과물들이 축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분석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포교성과물들이 남겨진 일은 거의 없다. 주먹구구식이며 구태의연한 이런 풍토는 올해 분명이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일 년에 한 권이라도 포교성과를 기록할 수 있는 포교자료집이라도 나온다면 그 의의는 클 것이다.

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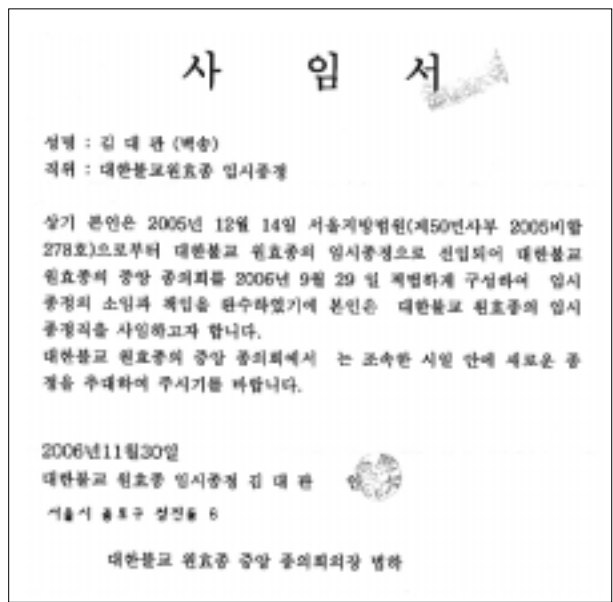
공동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힘과 발전은 기대된다. 양적 포교를 넘어 질적 포교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그동안 없었다. 군포교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포교성과에 대한 객관적 반성을 토대로 장단기적인 포교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교구 출범 초기 상황에 많은 것들을 해내기란 어렵겠지만, 먼저 각 포교현장의 군승들이 일관성도 연계성도 없는 폐쇄적인 자기방식 형태의 포교를 지양해야 한다.

적극적인 포교 성과물들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군포교 발전을 위한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장병들의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이를 종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군포교연구실의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김창모(육군종합행정학교 법사)

**공 고**

2006년11월30일 김대관(벽송)스님께서 제출하신 사임서는 2007년 2월1일 임시중앙총회에서 본인의 뜻을 받아들여 사임서를 수리하였고, 임시중앙총회에서 차기정정에 우종산스님을 선임하였으므로 향후 임시총정의 직함이나 직인은 일체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중앙총회

**佛寶法象道(불보법상도) 보급 안내**

- ◎ 법상도(법상도)는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총기 사역판만사백전장경 목록을 당나라 현장법사와 함께 서천에 가서 모셔온 가장 길하고 상서로운 흰코끼리(백상:白象)의 법도(법도)를 나타낸 것이다.
- ◎ 이 백상(흰코끼리:白象)의 둘레에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목록을 써서 조성한 법상도(法象道)는 불자라면 누구나 필히 한품씩 집안에 소장할 필요가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성품(聖品)이며, 길상품(吉祥品)으로서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목록과 함께한 법상도(法象道)는 한마디라도 영험이 없다고 말하면 안된다"라고 자은전 10권(慈恩傳10권)등의 자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 ◎ 법상도(法象道)의 가장 큰 영험은 특히 고증자료에서 "중생들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가장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며, 그 외에 집안에 두면 장경 전부를 읽는 공덕을 얻고, 무량계 불이 호위 하시면 세계생생에 수복무량하고 일체 재해가 스스로 소멸하며 살아가는 소원성취와 호신용으로 죽어서는 극락왕생 보장책으로 그 영험이 크게 있다"하였다.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액자의 효험**

-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액자는 집안에 거는 날부터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준다.
- 재앙이나 재난을 미리 예방해 주는 효험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나 스님들의 건강이 열려있다면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액자를 구해서 집안에 걸도록 하십시오.
-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몸을 보호해 주고 예방해 줌은 물론, 어느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하거나 하여 놀라는 일 등이 없을 것입니다.
- 이미 몸살병에 걸렸거나 건강이 안좋은 상태에 있어 허더리도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하거나 호전시켜주는 신령력을 발휘합니다.

**성지 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704-1 성지빌딩

전화:031)768-8414~6 팩스768-8413

- ◎소재: 팔 깨 - 고급 무늬목재
- 법상도 - 특수 금속판에 직접 조성,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기법처리
- ◎규격: 45cm × 45cm ◎보급가: 20만원



佛寶法象道(불보법상도)액자